



제목	터키민담 켈올란 이야기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민속원
발행일	2017. 12. 25.
저자	튀르퀴쥬, 하티제 괴르올르, 김기창, 조민경, 타시프나르, 홀리아
출판도시	서울
페이지수	366
ISBN 또는 ISSN	978-8928511419

내용 요약

민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하는데, 그 속에는 그 민족의 사상, 신앙, 지혜, 자연관, 세계관이 반영되어있다. 그러므로 민담은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. 본 책은 켈올란을 주인공으로 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엮은 것으로, 총 54편이 수록되어있다. 켈올란은 대머리 소년인데, 홀어머니와 산다. 그는 게으르고 매사에 서투르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점차 지혜롭고 용감한 인물로 변한다. 켈올란 민담의 중요한 특성은 “속임수”와 “피”라고 할 수 있다. 그는 항상 기발한 피를 내어 적을 쳐부수고, 결말에는 부자가 되거나 공주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곤란한 상황을 무사히 빠져나온다.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처하더라도 지혜와 용기가 있으면 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낙천적인 민중의 천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.

켈올란은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한 삶을 살고자하는 서민들의 바람과 인색한 사람이나 악독한 귀족들을 놀리고 골탕 먹고자하는 민중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인물이라 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켈올란 민담은 오랫동안 단행본으로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, 켈올란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, 게임 등 여러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 지고 있다.